

“인생은 고통 ... 굳이 행복하려 애쓰지 말라”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지음, 강주현 옮김



조던 B. 피터슨은 토론토대 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다.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그는 최고의 명강의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젊은이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피터슨 현상'을 일으키며 200만 부가 넘는 판매 부스를 기록했다.

타일러 코엔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서구 사회에서 조던 피터슨보다 영향력 있는 학자는 없다"고 말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은 피터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50만을 넘는데다 누적 조회수는 7500만 회에 달한다. 전 세계 55개국 100여 회가 넘는 유료 강연에만 26만 명 이상의 청중이 몰렸다.

이렇듯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삶의 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사회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지혜를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 피터슨은 그 차이를 배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 '퀴라'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쓰는 저자의 취미에서 시작됐다. 그 가운데 12개를 추려 3년 간 책을 집필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다.

“보통 인생의 의미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불행하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는가? 행복은 예측할 수 없고 쉽게 사라진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을 수 없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불행했었을 때 인생은 바로 실패한 것이 되어 버린다.”

저자는 인생의 절대적 진리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단언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비극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외면하면 비극 앞에서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다. 행복보다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저자는 남들과의 비교가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언급한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고 더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또한 많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하면 된다. 나의 장점과 약점, 처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 있다. 게임을 바꿔도 효과가 없으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된다.”

피터슨은 인간과 유사한 바닷가재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한다. 바닷가재에게 항우울제를 맞으면 승리한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한다. 인간과 신경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인데, 인간도 서열구조가 낮으면



저자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그림은 마지막 독배를 듣기 직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리고 경청을 외면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의 모습. <메이브 제공>

우울하고 의욕도 없어진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메이브·1만6800원 /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푸른눈의 한국학자가 본 조선인의 삶과 구한말 역사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제임스 S. 게일 지음, 최재형 옮김



1888년 조선 땅에 첫발을 디딘, 스물다섯살의 선교사 제임스 S. 게일은 '푸른눈의 한국학자'였다. '기일'이라는 한국명을 갖고 40여년간 한국에 살았던 그는 '오늘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다수보다 더욱 이 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해박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문학을 번역 출간했다. 1895년 출간한 존 번안의 '천로역정(The Pilgrims)'이다. 또 우리 문학을 서양에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다. 1921년 청파 이육사의 '청파극담'과 수촌 임방의 '천여록'에 전하는 이야기들을 모아 'Korea Folk Tales', 이듬해에는 김만중의 '구운몽'을 'The Cloud Dream of Nine'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했다.

또 구한말 역사 속에서는 대원군을 만났고 박영효 등 관리들과 밀접했으며 명성황후가 시해된 날 고통을 알현한 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승만의 미국 유학 추천장을 써 준 이도 그였다. 제임스 S. 게일이 1888년부터 1897년까지 기록을 담아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1898년 출간한 'Korean Sketches'를 번역한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 나왔다. 120년 전 조선의 풍경과 역사적 사건이 그의 손에서 되살아난 'Korean Sketches'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책에는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인의 삶과 생활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또 청일전쟁, 아관파천, 갑신정변, 명성황후

후가 시해된 날 고통을 알현한 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승만의 미국 유학 추천장을 써 준 이도 그였다.

제임스 S. 게일이 1888년부터 1897년까지 기록을 담아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1898년 출간한 'Korean Sketches'를 번역한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 나왔다. 120년 전 조선의 풍경과 역사적 사건이 그의 손에서 되살아난 'Korean Sketches'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책에는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인의 삶과 생활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또 청일전쟁, 아관파천, 갑신정변, 명성황후

시해 등 역사적 현장도 생생히 묘사돼 있다. 개일은 서울 정동에 모여 살던 다른 서양인들과 달리, '조선 땅 안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 한 후 서울은 물론 황해도 해주, 부산, 제주포 등을 돌며 조선인의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겪었다.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종이를 바른 문과 창은 모두 손가락으로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 뒤에는 단 한번의 깜박임도 없이 나를 주시하던 검은 눈동자"의 시선을 느끼며 그는 조선인의 삶 안으로 들어갔다.

게일은 책에서 조선인의 장례 지내는 방식, 몸이 데일 정도로 뜨겁게 아궁이를 데우는 방식 등 삶의 풍경과 함께 긴박했던 아관파천의 뒷 이야기를 들려주고 갑신정변과 을미사변을 논하며 일본을 비난하고, 조선이 일본에 잠식돼 가는 과정과 순간을 아파한다.

<책비·1만8000원 /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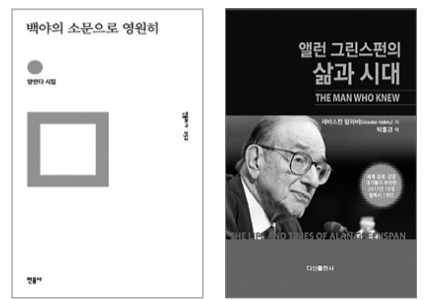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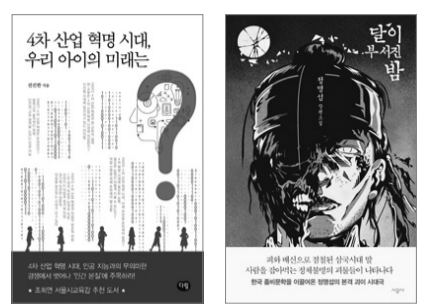
▲4차 산업 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산업 혁명과 같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기술 혁명이 일어날 때는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직업의 세계는 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기록·정보 활동가 전진환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다림·1만3000원>

▲달이 부서진 밤=죽은 사람이 되살아나 산 사람 곁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설화는 어디에도 있다. 지은이 정명섭은 조선의 학자성현이 민간 풍속과 문화 전반을 정리해 집필한 '용재총화'에 등장하는 좁비와 비슷한 존재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배치해 극의 사실감을 더하는 한편, 고구려와 그 멸망을 좁비물 전문가가답게 장르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시공사·1만3400원>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지난 201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이름을 알린 뒤 시집 '작은 미래의 책'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각인시킨 젊은 시인 양안다의 신작이다. 시인은 실패를 예상하는 연애의 장면들로 불가항력의 세계를 그려 내지만 동시에 불가항력임에도 끝내 예지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 준다. <민음사·9000원>

▲앨런 그린스피어의 삶과 시대=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세바스찬 말라비가 현대 금융의 역사 앨런 그린스피어의 생애를 다뤘다. 또 그린스피어의 이야기를 통해 닉슨부터 조지 W. 부시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다. 뉴욕 유대인 이주자 지역에서 홀어머니 아래 성장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정수라 평가되고 있다. 불가 안정과 같은 현안에 있어서 그는 거장의 면모를 보였다. <다산출판사·2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신랑감 찾은 두더지= '사윗감 찾은 두더지'의 이야기를 빌려 쓴 이 책에서는 아빠 두더지가 아니라 딸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랑감을 직접 찾아 나선다. 두더지의 신랑감 찾기 여정 속에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풀라주 기법처럼 느껴지는 그림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옛이야기의 맛을 재치 있게 살리고 있다. <하루놀·1만1800원>

▲소년, 꿈꾸다=물도 없는 친구인 소년과 소녀는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헤어진다. 소년은 소녀가 떠난 다음 날부터 날마다 담벼락에 커다란 뚝뚝배를 그린다. 이 배를 타고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샌들을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는다. 소년은 소녀에게 샌들을 전해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넓은 세계로 떠난 역사 속 특별한 여행=통일 신라, 고려, 조선,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재를 배경으로 10가지 여행을 떠난다. 이 책은 승려, 장군, 왕, 학자, 어부, 선비, 화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우리 역사 속 인물들과 문화재가 주인공이다. 통일 신라 시대 고려인 최초의 구도 여행, 조선 시대 학자였던 박지원의 외교 여행, 일제 강점기 여성 인권 운동가 나혜석의 유학 여행 등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린북·1만5000원>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

CHANNEL